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5. 18. ~ 5. 24.

전남농업정보

34

VOL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벼·콩 재배 동향 및 과일·과채 가격 동향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 동향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 '속도'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 농업경쟁력 높인다

■ 정책동향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 해외 농업정보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농가
간 조류독감 확산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0만ha로 전년대비 1.9% 감소
- 2015년 쌀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1% 감소
- 금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6만 9,838ha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 일 : 사과, 배

- 사 과 : 저장량 적어 5월 후지 가격은 전년대비 높은 상품 15kg에 5만 6천~6만원 전망
- 배 : 5월 신고 가격은 저장량 많아 전년대비 낮은 가격 약세 지속될 전망

▶ 과 채 : 참외, 토마토

- 참 외 : 참외 5월 가격은 출하량 줄어 작년대비 높은 상품 10kg에 4만 1천~4만 6천원 전망
- 토마토 : 5월에도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많아 작년대비 낮은 상품 5kg에 8천~1만원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동향

- 대 파 : 출하실적은 99% 완료되었으며 도매시장 가격은 2,180원/kg(전년 735원 대비 197% ↑)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818원/kg(전년 490원 대비 67%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 수출확대 및 신성장 동력 확충...‘맛을 활용한 식품 산업 글로벌 전략’ 논의
- ▶ 엔저현상 장기화...화훼·파프리카 수출농가 ‘시름’
- ▶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 ‘속도’
- ▶ “국내 할랄·유기농 인증, 해외서 통할 수 있게 해야”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뽕잎 활용 6차산업 제품 개발에 앞장
- ▶ ‘먹는 인슐린’ 강진 여주 수확 시작
- ▶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 농업경쟁력 높인다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 ▶ TPP 가입 여론몰이...농업계 “농어업 희생 안된다”
- ▶ “지역특화 농산업 발전, 민간 기능 활성화 필요”
- ▶ 농식품부·로컬푸드운동본부 ‘채소모종 무료 나눠주기’
- ▶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전국민 농촌가는 날”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농가 간 조류독감 확산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강보합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USDA보고서의 파종속도 상승전망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마감
 - 대두 선물가격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USDA보고서의 파종속도 상승전망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전남매일)

- ▶ 전남 청년농업인 - 나주 ‘서준농장’ 배서준 대표
- ▶ 구례 초원목장 박윤규·종현 부자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2015년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신청

- 신청기한 : 5. 22.한
- 접수기관 :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량 : 75,000ha(밭작물 25,000, 동계작물 50,000)
- 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250천원/ha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400천원/ha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500천원/ha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대상품목 : 벼, 고추, 고구마,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17종
- 가입기간 : 벼 4.20~6.5, 고추 4.13~5.22, 고구마 5.4~5.29, 시설작물 2.23~12.31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업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5. 1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18)	전주 (5/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00	42,800	41,267	↓ 4.7	↓ 1.1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6,000	142,000	190,667	↓ 3.5	↓ 28.1
	고구마(밤)	10kg	31,200	31,000	28,200	26,550	28,810	↑ 17.5	↑ 8.3
	감자(수미)	20kg	56,600	48,600	44,750	24,800	27,497	↑ 128.2	↑ 105.8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140	710	483	346	346	↑ 229.5	↑ 229.5
	양배추	10kg	8,400	7,100	5,825	4,105	6,805	↑ 104.6	↑ 23.4
	오이(다다기계통)	15kg	21,000	26,333	38,583	19,000	28,521	↑ 10.5	↓ 26.4
	애호박	8kg	10,600	11,200	20,350	12,200	12,003	↓ 13.1	↓ 11.7
	토마토	10kg	22,800	22,200	33,800	22,800	23,760	-	↓ 4.0
	무(월동)	1kg	500	500	470	490	630	↑ 2.0	↓ 20.6
	당근	20kg	25,400	23,200	23,050	32,300	31,633	↓ 21.4	↓ 19.7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72,000	↑ 28.1	↑ 6.2
	풋고추	10kg	43,000	53,000	56,000	45,100	41,470	↓ 4.7	↑ 3.7
	마늘(난지)	10kg	36,000	35,400	34,900	27,400	38,918	↑ 31.4	↓ 7.5
	양파	1kg	680	790	715	622	738	↑ 9.3	↓ 7.9
	대파	1kg	1,810	1,730	1,570	1,040	1,579	↑ 74.0	↑ 14.6
	파프리카	5kg	18,800	15,600	25,150	22,650	23,980	↓ 17.0	↓ 21.6
	방울토마토	5kg	16,200	18,200	23,800	16,000	17,974	↑ 1.3	↓ 9.9
	딸기	1kg	6,700	6,600	8,350	7,350	6,383	↓ 8.8	↑ 5.0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5,800	65,800	63,800	85,100	79,430	↓ 22.7	↓ 17.2
	배(신고)	15kg	40,600	41,200	40,800	48,300	48,158	↓ 15.9	↓ 15.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18)	전주 (5/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66,444	↓ 0.4	↓ 6.1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50,000	364,267	↓ 6.7	↑ 15.3
	새송이버섯	2kg	8,400	8,600	8,550	8,550	8,299	↓ 1.8	↑ 1.2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61	6,445	6,296	6,191	6,086	↑ 6.0	↑ 7.8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24	2,093	1,861	1,950	1,786	↑ 8.9	↑ 18.9
	닭고기	1kg	5,430	5,378	5,267	6,125	5,687	↓ 11.3	↓ 4.5
	계란(특란)	10개	1,986	1,994	1,963	2,033	1,862	↓ 2.3	↑ 6.7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4	2,295	↑ 0.2	↑ 11.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5. 18.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02 천원	4,699 천원	4,135 천원	↑ 0.1	↑ 13.7
	거세	5,684 "	5,562 "	5,506 "	↑ 2.2	↑ 3.2
송아지 (6~7월)	암	2,286 "	2,161 "	1,609 "	↑ 5.8	↑ 42.1
	수	2,793 "	2,692 "	2,465 "	↑ 3.8	↑ 13.3
육우(600Kg)		3,160 "	3,592 "	2,574 "	↓ 12	↑ 22.8
젖소수송아지(7일령)		149 "	149 "	16 "	-	↑ 831.3
돼지(110kg)		478 "	436 "	406 "	↑ 9.6	↑ 17.7
육계(원/kg)		1,543 원	1,652 원	1,482 원	↓ 6.6	↑ 4.1
계란(원/특란10개)		1,425 원	1,421 원	1,308 원	↑ 0.3	↑ 8.9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500 원	-	↓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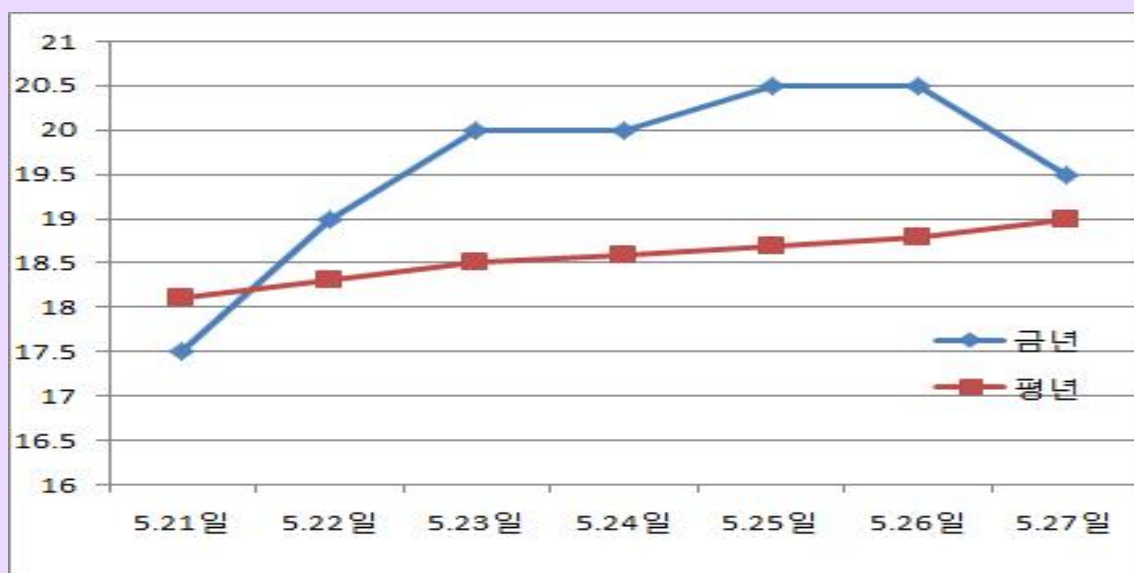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9.6	18.6	1.0	24.4	23.5	0.9	14.7	14.6	0.6	2.0
5. 21.(목)	17.5	18.1	-0.6	23	23.1	-0.1	12	14.1	2.1	2.5
5. 22.(금)	19	18.3	0.7	24	23.3	0.7	14	14.3	0.3	2
5. 23.(토)	20	18.5	1.5	25	23.4	1.6	15	14.5	-0.5	2
5. 24.(일)	20	18.6	1.4	25	23.5	1.5	15	14.6	0.4	1.8
5. 25.(월)	20.5	18.7	1.8	25	23.6	1.4	16	14.8	1.2	1.7
5. 26.(화)	20.5	18.8	1.7	25	23.8	1.2	16	15	1	2.1
5. 27.(수)	19.5	19	0.5	24	24.1	-0.1	15	15.1	-0.1	2.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벼·콩 재배 동향

□ 2015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0만ha로 전년대비 1.9% 감소

- 2014년산 수확기 벼 가격이 하락하고 최근까지 약세를 보임에 따라 2015년 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80만 ha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2015년 1월 초) 조사치보다 1천 ha 감소한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지역별로는 2014년 잦은 강우로 생산량 감소폭이 가장 컸던 영남이 전년대비 2.3%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충청이 2.1%, 강원·경기와 호남이 각각 1.8%, 1.5% 감소하였다.
- 품종별로는 조생종 재배의향면적이 2.3% 감소하고, 중/중만생종은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 찰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1% 감소

- 2015년 찰벼 재배의향면적은 찰쌀 가격 약세로 전년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산 수확기 찰쌀 도매가격(상품 기준)이 kg당 2,474원으로 전년대비 1.5% 하락하였고, 2015년 1월 이후 2,475원으로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충청이 전년대비 6.1%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강원·경기 3.1%, 영남 3.0%, 호남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6만 9,838ha

- 콩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5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6만 9,838ha로 나타났다. 밭 콩은 전년대비 6.5%, 논 콩은 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산 수확기 콩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일부 콩 재배농가들은 들깨, 율무 등 타 작목으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콩 재배의향면적을 보면 충청지역의 감소율이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호남 7.8%, 강원·경기 5.7%, 영남 4.4% 순이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 일 : 사과, 배

○ (사 과)

- 저장량 적어 5월 후지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상품 15kg에 5만 6천~6만원 전망

○ (배)

- 5월 신고 가격은 저장량 많아 전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세 지속될 전망

과 채 : 참외, 토마토

○ (참 외)

- 참외 5월 가격은 출하량 줄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10kg에 4만 1천~4만 6천원 전망

○ (토마토)

- 5월에도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많아 작년보다 낮은 상품 5kg에 8천~1만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대파·양파·마늘 수급 동향

○ (대 파)

- 출하실적 : 99% 출하 완료
- 도매시장 가격('15.5.12 현재, 상품기준)
 - 대파 : 2,180원/kg(전년 735원 대비 197% ↑, 평년 1,744원 대비 25% ↑)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조생종 1,742(19%), 중만생종 7,429(81%)
- 발떼기 거래
 - (조생종) 8~11천원/3.3m²(전년 5~7천원/3.3m²) * 90%이상 거래완료
 - (중만생) 8~9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10%미만 거래
- 출하동향 : 1,220ha(전체 면적 9,171ha의 13%) - 조생종 70% 수확
- 도매시장 가격('15.5.12 현재, 상품기준)
 - 양파 : 818원/kg(전년 490원 대비 67% ↑, 평년 629원 대비 30%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발떼기 거래 : 11~12천 원/3.3m²(전년 7~8천 원/3.3m²)
 - 거래실적 : 고흥 72%, 해남 63%, 신안 66% * 전년도 거래실적 35~40%
- 도매시장 가격('15.5.12 현재, 상품기준) * 저장마늘
 - 마늘 : 3,540원/kg(전년 2,740원 대비 29% ↑, 평년 3,500원 대비 1% ↑)

* 출처 : 전라남도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수출확대 및 신성장 동력 확충...‘맛을 활용한 식품 산업 글로벌 전략’ 논의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학연관 세미나 개최 -

- 철저한 현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농식품을 개발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맛을 활용한 식품 산업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학·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 해태제과, 오리온제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농식품 수출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해외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해태제과 연구소 정명교 소장은 ‘허니버터칩에 미치다’라는 주제를 통해 “지난 2012년 10월 일본·동남아·미국·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감자칩의 맛과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해 단맛·짭맛·고소한 맛을 모두 가진 허니버터칩을 개발했다”며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한 덕분에 큰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 ‘식품의 맛을 이용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강연을 진행한 노희진 오리온제과 센터장은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의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능검사 시스템(식품 품질을 사람의 오감으로 평가하는 제품검사) 덕분”이라며 “글로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아래 객관화된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숙 감각인지연구단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김 단장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오감을 모두 자극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 제품의 경우, 해외 소비자 대상의 관능평가를 통해 현지인 입맛의 맞는 제품 개발과 이에 따른 진출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백형희 단국대 교수는 “오감 중 향미가 특히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중소 식품기업의 경우, 향미 연구 설비가 부족해 소비자의 향미와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이 어렵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의 향미 연구 설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최희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은 “2016년 6월 말까지 식품클러스터에 기능성평가센터·품질안전센터·패키징센터 등 3대 R&D 센터 및 시험 생산 장비와 임대형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품질안전센터는 식품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분석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 과제를 제안한 식품기업이 직접 연구 기관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식품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엔저현상 장기화...화훼·파프리카 수출농가 ‘시름’

- 원·엔 환율이 900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화훼와 파프리카 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 최근까지 일본으로 연간 7000만 엔 이상의 백합을 수출하던 인제군의 H영농조합법인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이 금액을 수출하면 지난해에는 8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는 이대로 가면

6억3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환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수출이 어렵다는 것이 영농조합법인의 판단이다.

- 지난해 802톤을 생산해 일부 국내시장 출하와 함께 대부분 일본에 수출했던 양구군 파프리카 농가들도 오는 30일 본격적인 수출을 앞두고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 박재순 양구군 파프리카생산협의회장은 “파프리카 1kg당 2500~35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지금 같은 환율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11일 현재 100엔당 원화는 911원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016원과 비교하면 105원 정도 떨어졌다.
- 또한 6월은 동계 작기 마지막 생산량과 하계 작기 수확량이 겹쳐 파프리카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로, 현재 1700~1800엔 수준인 수출가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파프리카 수출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
- 문제는 농가들이 수출을 예상하고 생산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국내시장으로 돌리면 자칫 국내시장 가격도 폭락해 점점 더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한 파프리카는 총 2만3000여 톤이며 이중 99%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 이와 관련 국내 파프리카 수출을 담당하는 코파의 송윤대 이사는 “수출물량이 내수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엔화 환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파프리카 수출 농가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비율을 인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서정훈 외환은행 연구위원은 원·엔 환율이 더 하락해 800원대 중반까지 내려 갈수 있다고 진단해 일본 수출농가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 수출농가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보험을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농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환율까지 파악해 생산에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중화권 농식품 수출 확대 '속도'

- 상하이 씨알차이나, 수출상담실적 1억6700만달러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중국 최대 농식품 교역 전시회 '2015 상하이 씨알차이나(SIAL CHINA)'와 아시아 무역 허브도시인 홍콩에서 개최된 '2015 홍콩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농식품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활발히 홍보했다.
- 지난 5일부터 나흘간 열린 2015 상하이 씨알차이나에는 국내 112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했다.
- 행사기간 동안 약 5만5000여 명의 해외바이어가 한국관을 방문해 참가업체와 열띤 수출상담을 진행했고, 특히 콜라겐음료 등 건강기능성식품과 비빔밥과 같은 한식편의식, 유아용 식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출상담실적은 지난해(86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억6700만 달러를 기록해 대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 6일부터 9일까지 국내 23개 식품업체가 참여한 2015 홍콩식품박람회에서는 버섯시리얼과 마늘튀김 등 신상품이 참가 바이어들에게 집중 관심을 받으며, 348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뒀다.
- 버섯시리얼은 건강한 식사대용식으로 참가 바이어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5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마늘튀김은 현장에서 현지 유명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대형 바이어를 통해 마켓테스트 물량을 주문받아, 향후 7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 또한 떡볶이·어묵 등 우리의 길거리 음식골목을 재현한 ‘K-Street Food’ 홍보관이 운영돼, 참관객과 바이어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국내 할랄·유기농 인증, 해외서 통할 수 있게 해야"

-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 규모 영세...정부 지원 필요 -

- 올해 정부의 농식품 수출 목표인 77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할랄·유기농 인증에 대한 해외 주요국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 수출 전략 상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지원 강화, 해외박람회 지방자치단체 공동관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인삼농협 가공공장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유관기관·지자체·수출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및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할랄·중국 시장 등 수출 전략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할랄 인증 및 유기농 인증이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동등성 협정 체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 박봉순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수출을 추진 중인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내 할랄 인증과 인도네시아 인증과의 동등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 이어 신용수 충북도 원예유통식품과장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유기농제품 수출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유기농제품은 중국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한·중 양국 간의 유기농인증 동등성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업체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 및 품질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는 “식품업체들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올해 가공식품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4.6% 증가에 그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며 “할랄·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 전략상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밖에도 각 지자체의 농식품 수출 담당자들은 해외 식품박람회의 수출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함께 참가하는 ‘지자체 공동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특정 지역에 수출업체들이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비율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이와 관련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랄 인증은 동등성 인정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해결 과제를 정리한 후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해외박람회 지자체 공동관 운영, 물류비 문제 등은 이미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이동필 장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수출업체가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뽕잎 활용 6차산업 제품 개발에 앞장

- 덕음방식에 증열을 혼합한 뽕잎차, 항암·항당뇨 등 기능성 탁월 -

- 웰빙이라는 말이 우리 삶에 정착 되어가는 요즘 건강에 좋은 뽕잎차를 차별화한 방식으로 6차 산업 제품개발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앞장서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식의약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뽕잎을 이용해 기존 덕음방법에 증열을 혼합하여 기능성과 항암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했다.
- 뽕잎 채취시기는 5월 하순에 상위 1엽 ~ 6엽까지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채취한 뽕잎을 3 ~ 4등분으로 절단 후 증열기에 넣고 100℃ 55±5초간 증열을 실시해 뽕잎의 산화효소 작용을 억제시켰다.
- 이후 조유기에서 유용성분 용출 및 수분 감소를 위해 100℃ 40분간 처리한 다음 유념기에서 20분간 비빔공정을 실시했다.
- 또한 뽕잎차 모양을 만들기 위해 중유기에서 70℃ 30분 처리하고, 건조와 구수한맛을 위해 덕음통에서 180℃ 30분 처리하여 기호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고품질 뽕잎차를 생산했다.
- 이같이 제조된 뽕잎차에서는 기호성분인 총아미노산, 탄닌, 비타민 C 뿐아니라 항산화활성도가 24%로 우수했다.
- 또 세포를 이용한 항암활성 측정 결과 위암에 대해서는 15 ~ 20%, 대장암은 25 ~ 30% 정도 증식억제 효과를 나타내 효과가 양호하였다.
- 곤충잠업연구소 박장현 박사는 “ 증열과 덕음혼합방식의 뽕잎차는

품질과 향암 및 항당뇨효과가 우수해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 가능한 제품일 뿐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한편 뽕나무 재배는 1980년을 기점으로 화학섬유 수요가 증가되면서 축소되었다가 2000년 이후 인공고막, 생활용품, 식의약품소재 등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뽕나무 재배면적은 전국 560ha, 전남은 10.5%인 59ha가 재배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먹는 인슐린' 강진 여주 수확 시작

- 온화한 기후 활용 조기 재배 두달 앞당겨 -

- 여름철 웰빙채소로 각광받고 있는 전남 강진 ‘여주’가 벌써부터 수확에 들어갔다.
-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온화한 남부해안 지역의 기후를 활용 2중 비가림하우스에 여주를 심어 최근 수확하고 있다.
- 여주는 보통 일반 노지 재배의 경우 7월에 수확이 가능해 두달 여 앞당긴 셈이다. 지역의 온화한 기후를 활용 타지역보다 빨리 출하하기 위해 3월 초순 정식을 해 비가림하우스에서 조기재배를 시작했다. 2중의 비닐로 된 비가림하우스에 비닐 터널까지 씌워 3중 보온을 통해 추위에도 견디도록 재배한 것이다.
- 군은 지난해 전남 농업기술원이 공모한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억3천만원을 들여 지역특화작물로 여주를 육성하고 있다.

- 수확한 여주는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며, 전국에서 입소문을 통해 생여주를 기다리던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이 밀리고 있다.
- 사업에 참여해 여주를 수확중인 김웅(59)씨는 “여주는 기능성이 우수하지만 체계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워 농가들이 재배를 꺼려하고 있다”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재배방법을 도입해 일찍 심은 것이 수확이 빨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쓴오이라고 불리는 여주는 껍질이 혹 같은 돌기로 덮여있는 열매로 특수성분인 카란틴과 공액리놀산 등이 함유돼 있어 성인병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 C 함량이 채소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 강진군에서는 40여 농가에서 8.2ha의 여주를 재배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 농업경쟁력 높인다

- 18일까지 농업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

- 전남 화순군은 12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 및 농업인 정보화 활용능력을 기르고, 농업정보 수집·분석·활용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이밖에 농업기술센터는 작물 재배기술과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역량개발담당(061-379-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공감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협력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면 국제협약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 세계 종자시장은 최근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 → '12년 449)
- 반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 유용한 유전자원, 유전육종기술, 병리생리학기술, 및 첨단 생명공학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 세계 종자시장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주요 선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산업기반은 미약하며, 기업은 영세하여 산업규모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채소 육종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국가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0여년에 불과

* 국내 1,300여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30개 미만

- 외환위기(1997~1998) 때 주요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 외국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 ('97) 65% → ('10) 33 → ('14) 11

- 정부에서는 종자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국산화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강점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산업기반 확충, RD 강화,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인큐베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TPP 가입 여론몰이...농업계 “농어업 희생 안된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농업계에서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TPP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8일 학계 및 통상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TPP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포럼에 대해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개국간 TPP 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 이날 포럼은 국익을 위해서는 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TPP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에 TPP 참여시기를 결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맞부딪히면서도, 전반적으로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포럼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가 타결된 상황에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까지 추진될 경우 우리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TPP 가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TPP는 FTA보다 넓은 개념의 다자간 협상으로 그만큼 농업분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통상협상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TPP는 농산물의 수입확대를 부추기는 만큼 TPP 가입을 위한 논의는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지역특화 농산업 발전, 민간 기능 활성화 필요”

- 지역특화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민간 조직의 기능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도한 ‘지역특화 농산업 추진실태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례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역량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생산부문의 경우 과도한 재배면적 확대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유통부문에서는 농협의 기능위축이 과제로 지적됐다. 가공부문은 다양한 소비수요에 대응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R&D)에서는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R&D성과 제고가 과제로 제기됐다.

- 박 연구위원은 “지역특화 농산업 육성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고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의 경험, 만족도는 가공·복합문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특화 농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특성과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추진,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민간조직의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 산업부문별 발전방안은 생산부문의 경우 생산기반에 대한 우선 정비이다. 생산기반의 규모화·조직화와 함께 생산기반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화작물 생산단지 간 연계강화는 물론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의 범위를 편의시설이나 생활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농산업 측면에서도 접근하도록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유통부문에서는 산지·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 확립이 우선 지적됐다. 농협의 산지유통 통합 능력 확보는 물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1차 생산물의 직거래체계 구축과 고품질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강화와 이에 대한 홍보·판촉활동 및 소비자 체험관련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 박 연구위원은 가공부문에서 광역단위 R&D·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연구소의 역량확보와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광역단위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생산부문의 현장 접목기술, 창업보육기능 등 컨설팅 부문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자 조직·가공업자·지자체 통합 가공사업 기반구축, 대기업과 제후를 통한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을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체험·관광부문에서는 체험·관광의 ‘랜드마크’ 조성을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지역의 특화품목 중심으로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배울거리, 먹을거리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박 연구위원은 정책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과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기능 강화, 중앙부서의 역할분담체계 및 지자체 단위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지자체 기능강화 측면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기능강화와 기초지자체의 특화농산업 사업체계 구축, 지역단위의 사업부문별 대표조직 육성 강화”를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식품부·로컬푸드운동본부 ‘채소모종 무료 나눠주기’

-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로컬푸드운동본부는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채소모종 무료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
-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철수 로컬푸드운동본부 대표, 박성우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 윤주이 본보 사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상추, 쪽갓 등 채소모종 10만5000주와 유기질비료 250kg을 나눠줬다. 또 로컬푸드 홍보관 운영, 재활용품을 활용한 텃밭만

들기, 가정에서 키우는 채소 재배방법 및 원예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 서규용 전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는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측면에서 도시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과장은 축사에서 “소비자들이 모종을 길러 직접 수확해보면 농업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와 함께 하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전국민 농촌가는 날"

-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재계, 농업계, 소비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촌방문 및 일손 돕기 캠페인이 전개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다함께 농촌가는 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 '다함께 농촌가는 날' 캠페인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전 국민들이 농촌으로 가는 날로 지정해 농촌일손 돕기와 농촌체험, 재능기부, 농산물 직거래 등의 도농교류 활동을 펼치자는 운동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도농상생 생활화 및 농촌방문 정례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다.
- 이번 캠페인은 농협중앙회의 제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동참하면서 범국민운동을 선포하게 됐다. 선포식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김진필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국회 농해수 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선포식 참석자들은 ‘다함께 농촌가는 날 국민 참여 선언문’을 통해 이번 캠페인이 범국민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를 표명했다.
-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심각성과 농업·농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하나 돼 적극 동참한다”며 “후대에도 물려줄 아름다운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도시민의 신뢰도 증대를 위해 매진할 것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확대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최원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한 노력은 농업과 농촌, 농업인만이 아닌 도시와 기업 등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과제”라며 “도농상생 생활화와 농촌방문 문화조성 등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과 농업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다함께 농촌가는 날 캠페인을 국회, 정부, 기업체, 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출발하게 됨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다함께 농촌가는 날 캠페인이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잘 스며들어 농업과 농촌의 가치 확산 및 도농상생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5월 셋째 주 토요일인 16일에는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농촌일손돕기, 농촌 맛·기차여행, 주

부 농산물 체험구매단 등이 운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6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자원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농가 간 조류독감 확산

미네소타주의 가금류수의사들은 치명적인 조류독감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정부 전략시행이 일부 경우에는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미국농가 간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야생조류들이 독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바이러스는 오염된 배설물과 접촉한 사람이나 트럭에 의해 가금류 농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람에 의한 오염된 토양이나 먼지의 공간 유입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감염된 농가를 격리시키고 조류들을 살처분시킴으로써 근접농가들로 바이러스가 이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재 그 질병이 농가들 간 이동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USDA도 물새들의 조류독감 확산에 주목하며 수많은 바이러스의 잠재적 이동경로에 대해 규명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USDA에 따르면 치명적인 조류독감 형질 H5는 5개월동안 14개 주에 확산되었으며 약 26백만 마리 조류를 감염시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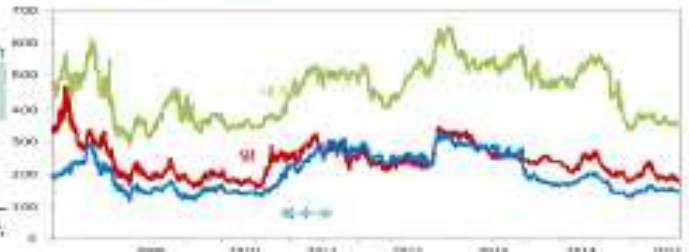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5. 5. 11.(시카고 선물거래소)

대두 및 옥수수가격, 파종속도 상승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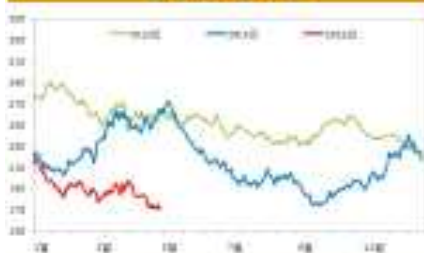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5.11)	전일대비	전월평균 (15.4)	2014 평균
밀	174.97	▲0.5%	184	216
옥수수	141.02	▼0.1%	147	164
대두	361.18	▼0.1%	35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225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경신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강보합 마감했음. 한편 거래업자들은 화요일 USDA 월간 수급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호지션을 취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5/16년 첫 곡물재고량이 발표될 것임.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USDA 보고서의 파종속도 상승전망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마감했음. 애널리스트들은 USDA 보고서가 지난 일요일 기준 옥수수파종 73%완료, 5년평균 5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또한 외부시장 약세 및 국내 가축사육업자들의 옥수수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 역시 가격에 추가적인 하방압박을 가했음.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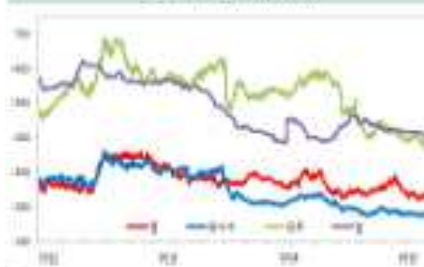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USDA 보고서의 파종속도 상승전망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마감했음. 애널리스트들은 USDA 보고서가 지난 일요일 기준 대두파종율 28%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는 5년평균 13%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함. 또한 마 달러화 강세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육수요 감소우려 역시 가격에 추가적인 하방압박을 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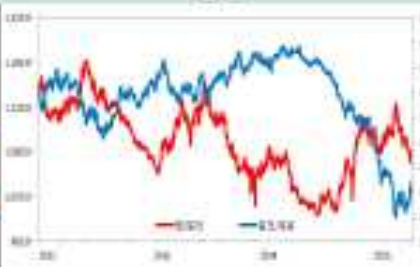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미국 석유 리그수 감소, 미국 고용시장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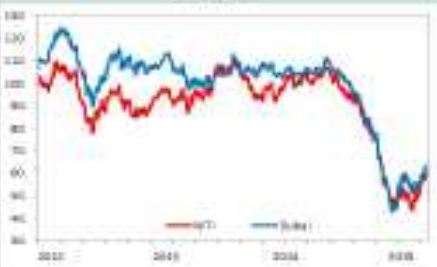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원유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7	▼2.5%	원유	원/달러		1,091	▲0.4%
	옥수수		171	▼1.7%		달러/유로		1,120	▼0.6%
	대두		394	▼0.5%		WTI		59.39	▲0.8%
	밀		303	▼0.5%		Dubai		62.96	▼3.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JTC Gulf), 대두(US Gulf), 밀(Thailand 100% Grade B), WTI(원유), Dubai(원유)

2) 기준일은 '15.5.8(수출가격), '15.5.11(원유), '15.5.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기서회, 한국은행, 한국식량공사)의 집계자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 청년농업인 — 나주 '서준농장' 배서준 대표

- "귀농은 오래 준비하는 것만이 실패 줄이는 지름길" -
- 땅 10년 임대 하우스서 표고·얼갈이 배추 재배
예비사회적기업 통해 친환경 농산물 급식 납품
친환경자재 자가 제조 통한 비용절감·역량강화
"브랜드 CI 디자인...내년에 버섯 체험키트도 제작"
- "귀촌은 쉬워도 귀농은 매우 힘이 듭니다. 사전 준비 없이 내려가면 100% 실패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만이 실패율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표고버섯농장을 설립한 배서준 (34) 대표.
- 전남 나주 '서준농장' 배 대표는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3년간 하다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 나주로 귀농한 경영인이다.
- 귀농 1년차에는 나주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귀농인들의 교육 업무를 1년간 담당하면서 누구보다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다.
- 1년간 귀농귀촌센터 업무와 농업을 병행하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었다.
- 배 대표는 개인땅을 10년 임대해 하우스 4동 3천300㎡의 시설에서 표고버섯과 고추·애호박·얼갈이 배추를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 기업을 통해 친환경학교 급식에 생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유기농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 주작목인 고추와 애호박에 대해 2012년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무농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농업 기술을 체득했다.
- 오는 2016년 유기농산물 생산을 최종 목표로 추진 중이다.
- 미생물과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균배양체 퇴비 제조를 통한 토양 관리 기술과 골분비액, 천혜녹즙 등 다양한 액비제조 기술을 제공했다.
- 배 대표는 각종 병충해 관리를 위한 난황유 활용과 유용 미생물 자가 배양 기술, 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병충해 관리자재 자가 제조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경영체의 역량강화에도 힘썼다.
- 배 대표는 귀농 2년차로 전체적인 재배기술이 다소 미흡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자재에만 의존하다 보니 경영비 중 자재 사용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 여기에다 최종 목표인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 기준 자재비용 50% 절감 계획을 세웠지만,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난 2014년 20%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계획을 수정했다.
- 배 대표는 귀농귀촌 센터를 통한 친환경 자재 제조기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이수했으나 현장에서의 제조와 활용 능력이 미흡했다.

- 또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실습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농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친환경자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경영비 중 자재비 사용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었다.
- 배 대표는 경영체 최종 목표가 유기농산물 생산인만큼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과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자가 제조 기술과 다양한 친환경 자재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배 대표는 오는 2016년 유기농산물 인증을 최종 목표로 경영계획을 수정했으며, 지난 2014년 1년차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자재비 절감 방안을 통한 경영체의 역량강화에 점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 또 비용절감을 위해 구입해서 사용하는 친환경 자재 비율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자재는 경영체 본인이 직접 제조해 사용했다.
- 이와 함께 토양 관리를 위한 균배양체 퇴비 제조, 작물생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골분액비, 천혜녹즙과 청초액비와 청초액비의 제조기술과 병충해 관리를 위한 난황유 제조와 활용기술, 살충성 유용미생물의 자가배양기술·활용기술, 멀구슬열매, 때죽나무 열매와 고삼뿌리 등을 활용한 식물 살충제 등 다양한 친환경 자재의 자가 제조 기술을 마스터했다.
- 배 대표는 당초 목표였던 50%의 자재비 절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2013년 자재비 400만원 대비 40%를 절감한 160만원의 절감 효과를 봤다.
- 배 대표는 "이 같은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50% 절감 목표

로 약 20여가지 친환경 자재 제조 기술력을 확보해 주변 친환경 경영체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배 대표는 젊은 귀농인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 배 대표는 "성공한 귀농인이 되려면 농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목 선정, 사업 아이템은 물론 현지인들과의 소통 능력과 유통상인들이 선호하는 포장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브랜드 CI를 디자인 중이며, 내년쯤 표고버섯 체험키트도 만들어 고객들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표고버섯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구례 초원목장 박윤규·종현 부자

- 젓소 자연순환 방목...가공·체험 등 6억 성공모델 -

- 자연순환형 방목축산으로 젓소를 키우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가공해 6억원대 소득을 일군 농가가 화제다.
- 구례 산동면에서 초원목장을 운영하는 박윤규(67)대표와 아들 종현씨가 주인공.
- 박씨 부자는 지난 1979년 불모지였던 땅을 지금의 농장으로 일궜다.
- 현재는 3만여평에 젓소 120마리를 자연방목하고 친환경우유를 생산, 가공해 '지리산 치즈랜드'라는 브랜드로 아이쿱 생협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 특히 치즈체험과 승마체험을 비롯, 목장 앞쪽에 조성된 유원지를 활용한 뱃놀이 등을 통해 낙농업의 산업화를 이뤄냈다.
- 박씨 부자의 사례는 6차산업의 전형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2007년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이어 2010년 HACCP 인증, 2012년에는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는 등 안전한 축산물생산의 기반을 구축한 점은 성공의 발판이 됐다.
-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은 대도시 친환경매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아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다.
- 연 매출액만도 6억원대에 달한다.
- 치즈체험관은 5년 전 박 대표의 아들 종현씨가 가업을 이어 개관해 현재 젓소는 물론 초지 관리와 승마장 운영 등으로 눈코 뜰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종현씨는 “앞으로 더 낫은 고품질의 치즈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국 제일의 치즈를 생산하겠다”며 “찾아오는 체험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힐링캠프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콘셉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낙농(젓소) 힐링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전남도는 그동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사업으로 가축 운동장 확보, 친환경축산물인증, 축산물 HACCP 지원 등 농가의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 명실공히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매일

10.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신청

- 신청기한 : 5. 22.한
- 접수기관 :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량 : 75,000ha(밭작물 25,000, 동계작물 50,000)
- 사업비 : 35,000백만원(국비 100%)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250천원/ha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400천원/ha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500천원/ha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대상품목 : 벼, 고추, 고구마,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17종
- 가입기간 : 벼 4.20~6.5, 고추 4.13~5.22, 고구마 5.4~5.29, 시설작물 2.23~12.31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업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재원비율(100%)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담 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주간

전남농업정보 34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